

‘축제의 달’ 온가족 풍성한 문화예술 즐겨볼까

CULTURE

2025년 4월 24일 목요일

ACC재단, 5월 한달간 공연·체험 등 행사 선봬

개관 10주년 기념 ‘하우펜11’·‘그림 대회’ 등

가정의달 5월을 맞아 온가족이 아시아 문화예술을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행사가 열린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전당재단, 사장 김선옥)은 어린이날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10주년을 맞아 대표 축제인 ‘어린이·가족문화축제 하우펜11’을 비롯해 해외 서커스 공연, 무용, 뮤지컬, 그림대회 등 풍성한 프로그램을 5월 한 달 동안 선보인다.

먼저 어린이날이 있는 5월 3일부터 5일까지 3일 동안 ‘어린이·가족문화축제 하우펜11’이 펼쳐진다. 올해는 ‘달콤 축하 상상 대작전’을 주제로 정하고, 아시아의 축하 문화와 생활양식을 체험할 수 있는 콘텐트로 구성했다.

프로그램은 ‘나의 작은 기념일’, ‘우리들의 즐거운 축하’, ‘세상의 모든 소망’ 등 세가지 소주제 아래 50여종의 전시, 체험, 공연으로 꾸며진다. 어린이문화원 다목적홀 등에서 진행되는 전시는 예술가와 연계한 체험형으로 구성된다.

‘나의 작은 기념일’에서는 생일과 입학식처럼 삶의 소중한 기념일을 탐구하고 나만의 의미 있는 순간으로 표현하는 활동을 할 수 있다. 공현진 작가의 ‘목신상화: 자투리 축제’에서는 쓰임이 다한 자투리 나무 조각을 이용해 나만의 나무 조각 인형을 만든다. 노현진 작가의 ‘그날의 맛’에서는 기념하고 싶은 날을 떠올리며 감정의 색을 상상하고 각각의 색의 재료를 활용해 그날의 분위기와 기분을 ‘맛’으로 표현해 본다.

‘우리들의 즐거운 축하’에서는 함께 축하를 주고

받는 즐거움을 다양한 방식으로 경험할 수 있다. 나란 작가는 ‘꽃들의 왈츠’를 통해 꽃 한 송이 한 송이가 모여 아름다운 꽃다발이 되는 모습을 통해 협력과 축하의 의미를 알려준다. 포리심 작가의 ‘다시 굶다’에서는 쓰이고 버려진 일상의 소재들을 재조합해 축하의 상징인 대형 케이크를 만든다.

남원시립김병중미술관과 전북특별자치도립미술관의 협력을 통해 김병중, 이지희 작가의 작품도 만날 수 있다.

또 ‘세상의 모든 소망’에서는 어린이의 눈높이에서 소망과 꿈을 예술로 풀어보는 참여형 프로그램이 가득하다. 노인우 작가의 ‘공간 13-3-3’에서는 각자의 꿈을 상상하고 공간에 그려볼 수 있다. 도파민 최 작가의 ‘도파

민의 작업실’에서는 예술가를 꿈꾸는 어린이들의 소망 메시지를 수집하고 선정된 메시지를 작가의 그림과 교환하는 특별한 예술 소통을 경험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축제에는 국내외의 다양한 기관이 함께 참여해 여러 나라의 축하와 기념 문화를 국제적인 시각으로 나누는 특별한 장이 마련된다. 어린이



센터 등 20여개 기관이 참여한다.

또 부대행사로 문화체육부장관상을 수여하는 ‘전당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가 5월 3일 열린다. 전당 야외 공간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이번 대회는 전국의 유치부, 초등학생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그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은 가정의달을 맞아 대표 축제인 ‘어린이·가족문화축제 하우펜11’을 비롯해 해외 서커스 공연, 뮤지컬, 그림대회 등 풍성한 프로그램을 5월 한 달 동안 선보인다. 사진은 뮤지컬 ‘천 개의 파랑’ 공연 모습.

림은 하우펜 축제와 연계한 지정된 주제를 현장에서 직접 그림으로 표현해 제출하면 된다. 수상작에는 대상(문화체육부장관상), 최우수상(국립아시아문화전당장상), 우수상(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사장상) 등이 주어진다. 참가 신청은 4월 30일까지이며, 전당재단 누리집에서 선착순 400명까지 가능하다.

이와함께 5월 한달간 서커스·무용·영화 등 전세대를 아우르는 공연도 만날 수 있다. 2일부터 4일까지 예술극장 극장 1에서는 호주의 현대 서커스 ‘더 펄스’ (The Pulse)가 선보인다. 18명의 곡예사가 몸으로 거대한 인간 구조물을 만들며 조명과 줄, 합창이 어우러진 특별한 서커스 무대다. 15일에는 광주 지역 노인복지기관과 협력을 통

해 어르신 대상 영화 상영회인 양반극장을 운영한다. 5월에는 옛 시절의 향수와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윤제균 감독의 ‘국제시장’을 상영한다. 28일에는 ‘ACC 브런치콘서트’로 안무가 이루다의 블랙토 무용단이 선보이는 ‘블랙토 댄스 콘서트’를 진행한다. 창작 발레와 영화 음악이 어우러져 영화 속 감동을 무대 위에서 새롭게 경험할 수 있다.

끝으로 30~31일 2019 한국 과학문화상 장편소설 부문 대상을 받은 천선란 작가의 베스트셀러 소설을 원작으로 한 창작뮤지컬 ‘천 개의 파랑’이 무대에 오른다. ‘2019 한국과학문화상’ 장편소설 부문 대상을 받은 천선란 작가의 동명 소설을 원작으로 한 창작뮤지컬로, 소외된 존재들이 전하는 따뜻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김다경 기자 alsqld194@

‘GB 작가탐방’ 두 번째 대화, 정명숙 작가

내달 1일 오후 4시 호랑가시나무 아트플리곤서

(재) 광주비엔날레(대표이사 직무대행,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 이상갑)는 오는 5월 1일 오후 4시 남구 제중로47번길 소재 호랑가시나무 아트플리곤에서 ‘GB 작가탐방’ 두 번째 대화 자리를 마련한다. 이번 대화 주인공은 정명숙 작가다.

‘GB 작가탐방’은 2018년부터 시작한 지역 밀착형 정기 프로그램 ‘월례회’의 하나로 마련된 가운데 광주·전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작가와 시민이 직접 만나 예술 세계를 공유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두 번째 자리는 작품 세계 속 일상과 기억을 예술로 전환하는 정명숙 작가의 작업과 그 층위에 대해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 예정이다.

정명숙 작가는 조선대에서 한국화를 전공하고, 동 대학원에서 미술교육 석사, 미술학 박사 과정을 수료했다. 작가는 설치, 드로잉, 종이 오리기 등을 활용한 혼합매체 작업을 통해 일상의



개인전 ‘모든 것은 빛나다’展 때 선보인 설치 작품.

감각, 시간의 축적, 그리고 삶의 기억을 시각적으로 기록해 왔다. 작가 작품에 등장하는 동그라미, 큐브, 자연을 상징하는 오브제는 삶의 단면들을 섬세하게 구성하는 방식으로 개인의 서사와 감정을 시각화하고 있다.

올해 11월까지 매달 진행될 ‘GB 작가탐방’은 2018년 제12회 광주비엔날레 때 ‘상상된 경계들’의 주제전에 큐레이터로 참여한 바 있는 김



작업 중 포즈를 취한 정명숙 작가.

성우 큐레이터가 대담자로 나서 다양한 작가들과의 만남을 이어간다. 현재 김성우 큐레이터는 동시대 예술을 확장된 문맥으로 소개하고자 설립된 예술 공간 프라이머리 프랙티스(Primary Practice, PP)를 운영하고 있다.

프로그램 종료 이후 정명숙 작가의 인터뷰 영상이 광주비엔날레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된다. 고선주 기자 rainidea@gwangnam.co.kr

갯벌 중심…자연의 순환과 생명력 탐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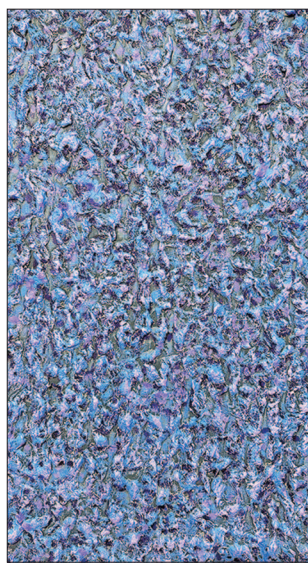
유동명 개인전 30일까지 우제길미술관 1전시실

유동명 작가(서양화)의 개인전이 지난 21일 개막. 오는 30일까지 우제길미술관 제1전시실에서 ‘숨결, 스며들다’라는 타이틀로 열린다.

봄의 끝자락에서 자연과 예술의 조화를 깊이 있게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될 이번 전시는 독창적인 제작 과정과 실험적인 기법으로 주목받고 있는 작가의 작품을 접할 수 있다.

작가는 다초점을 화폭 위에 반복적으로 덧대어 견고한 바탕을 형성하고, 그 위에 다양한 색조를 입힌 후 콜라주 기법으로 작품을 완성한다. 깊이 있는 질감과 독특한 색감의 조화가 특징으로, 마치 자연의 숨결이 스며든 듯한 감각을 자아낸다.

특히 이번 전시에서 작가는 갯벌을 중심으로 자연의 순환과 생명력을 탐구한다. 파랑과 회색, 빨강



‘생명’

등의 단색조 색감과 반복적인 질감은 갯벌의 끊임없는 흐름과 변화를 시각적으로 형상화하며, 그 속에 담긴 생명의 순환과 아름다움을 예술로 승화하고 있다. 갯벌은 생명의 근원과 조화로운 순환을 이루는 공간으로, 작가에게 깊은 영감을 준 공간이다. 관람객들은 그의 작품을 통해 익숙한 자연의 요소 속에서 새로운 감각과 해석을 발견할 수 있을 전망이다.

박경식 큐레이터는 전시에 앞서 “자연의 본질을 깊이 있게 사유하는 유 작가의 시선을 통해, 관람객들이 일상에서 놓치기 쉬운 생명의 숨결과 조우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작가는 예술적 탐구를 통해 자연과 인간, 그리고 시간의 흐름을 담아내며, 한국 미술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고선주 기자 rainidea@

그린알로에

그린프리미엄 베라골드 400 알로에겔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현대인들의 면역력 증진 뿐 아니라 장 건강, 피부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알로에 본고장인 미국산

✓유기농 알로에베라겔 즙액 400%

✓면역다당체 하루 섭취량 300mg

알로에 베라겔 즙액으로 400%

그린프리미엄 베라골드 400 알로에겔

※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서 광고심의 받은 광고물입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 제조사 : 코스맥스엔비티(주)

■ 유통전문판매원 : (주)그린알로에